



높은뜻 어린이 문학 세계관 학교

학문과 삶이 기독교세계관으로 통합되기를 소망하는 기독교 아동문학 프로그램

🕒 김현경

‘어문세’는 ‘높은뜻 어린이 문학 세계관 학교’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서 어린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문학을 바라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아동 문학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12기 수업 준비가 한창인 ‘높은뜻 어린이 문학 세계관 학교’(이하 어문세로 약칭)는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에서 주제별 연구를 통해 강의를 준비하고, 높은뜻 광성교회 교역자 및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문세가 시작된 지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6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이름이나 개념이 아직까지 조금은 특별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학문과 삶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통합되길 바라는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의 소망에서 시작된 어문세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독교 세계관과 아동문학 연구하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 삼기를 원하신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교역자에게만 해당되는 사명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길 바라지만,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학문을 바라보고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늘 쉽지 않다. 기독교 아동문학연구회는 아동문학이라는 연구 분야와 아동문학 교육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며 2002년에 시작되었다.

기독교 아동문학연구회는 혜화동에 소재하였던 기독교학교 자료센터에서 현은자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비전』(미들톤과 월쉬 저, IVP)과 같은 기독교 세계관 책과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비이스 저, 나침반), 『그리스도인에게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비이스 저, 나침반), 『신앙의 눈으로 본 문학』(겔러거와 런던 저, IVP), 『창조성의 회복』(프랭키 쉐퍼 저, 예영),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로크마커 저, IVP)과 같은 책으로 기독교 문학과 예술관을 공부하며 기독교 세계관과 아동문학의 연결점을 찾아나갔다. 초기의 회원은 성균관대 아동학과 대학원생들을 비롯하여 센터에서 모임을 가졌던 기독교 유아교육학회의 회원과 기독교 학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 아동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배경은 다양했지만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서 우리는 ‘좋은 책’이 어린이들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에 주목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 일 년에도 수 천종씩 출판되고 있지만 모두 다 좋은 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기독교 세계관에서 바라보았을 때 ‘좋은 책’이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아동도서를 같이 읽고 평가하면서 연구회에서는 2005년에 출간된 『내 어린이가 꼭 읽어야 할 좋은 책 110(유아·유치편)』과 『내 어린이가 꼭 읽어야 할 좋은 책 150(초등편)』(예영출판사)에서 좋은 책의 기준을 제안하고 책의 서평과 독후 활동을 담았다.

나니아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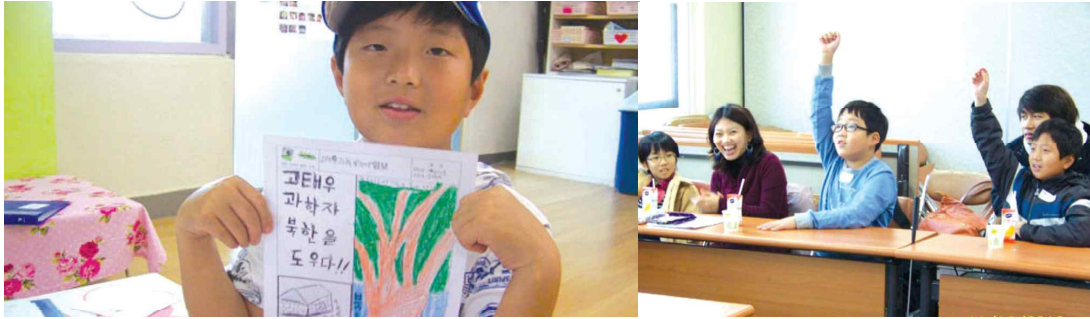
그 이후 연구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는 것 뿐 아니라 책 읽는 법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어린이들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일차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와 더불어 세상을 보는 안목도 자라게 된다. 어린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문학의 즐거움을 누리는 과정에서 그들은 표면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나타난 작가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러한 세계관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책을 읽는다고 어린이에게 저절로 그러한 능력이 자라는 것은 아니므로 성인이 도와줄 필요가 있었으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소위 아동문학전문가로서 우리들의 역할을 발견하였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우리는 2005년 여름 기독교 학교 자료 센터에서 '나니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초등학교 연령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나니아 프로젝트는 C. S. 루이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법사의 조카』를 읽고 토론 중심으로 진행된 수업이다. 나니아 프로젝트에서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말하는 사자 아슬란의 판타지 이야기’와 같이 문학교육의 측면에 한하여 읽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슬란이 창조한 나니아 나라의 이야기를 성경의 창세기에 비추어 비교해 보고, 이 세상 어딘가에 아직 반지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았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어린이들은 루이스의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대신, 루이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나니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구원들은 이 일을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문학교육과 신앙교육의 접목을 시도한 나니아 프로젝트는 그 당시 매우 실험적인 시도였지만 연구원들은 이것이 가능하고 또한 필요한 일임을 확신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가 일회성의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랐다.

높은뜻 어린이 문학 세계관 학교

‘높은뜻 어린이 문학 세계관 학교’는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와 높은뜻 송의교회가 손을 잡고 2006년에 시작한 어린이 문학교육 프로그램이다. 마침 높은뜻 송의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연구원 중에서 송의교회



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모임과 연결이 되었다. 처음부터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은 아동문학교육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지금까지 부모, 교사, 어린이, 이 세 집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꾸준히 개발되고 실시되고 있다.

‘좋은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높은 뜻 어린이 문학 세계관 학교’라는 모토로 시작된 어문세는 2006년 1학기에 1기 어린이들의 참여로 시작되어, 2011년 현재에는 12기 어린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동안 2009년 높은뜻 송의교회의 4교회 분립 이후 교육장소가 높은뜻 광성교회로 옮겨졌다는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높은뜻 송의교회 시절과 다름없이 지금도 여전히 다른 교회 어린이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다른 교회의 교역자들도 어문세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거나 스스로 교사로 지원하여 함께 하고 있다.

쉬는 토요일을 활용하다 보니 어문세 프로그램은 한 학기에 2개월, 8주간 진행되지만 실제 수업은 격주에 1회씩 4회기로 이루어진다. 학급은 어린이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1-2학년 반, 3-4학년 반, 5-6학년 반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어문세 수업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학급수도 매학기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교회의 교역자들의 참여율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어문세는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 아동문학 작품을 감상한 후, 교사 및 또래 어린이들과 토론을 하며 성경 말씀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게끔

하는 수업이다. 즉,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서로의 생각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독후활동보다는 책의 선정이나 책과 관련된 발문 작업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동문학교육을 한다고 할 때 신앙서적이거나 성경 이야기 그림책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책은 그러한 좁은 의미의 ‘기독교 서적’은 아니다. 프랑키 쉐퍼가 『창조성의 회복』에서 “집을 짓는 사람을 위한 기독교 벽돌이 따로 없는 것처럼, 기독교 예술이라는 것도 따로 없다.”고 말하였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아동도서는 문학성과 예술성이 높으며 매 학기의 주제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책들로 선정되었다.

2006년부터 어문세는 매학기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왔다. 2006년-2009년까지 주로 다루어졌던 주제는 살림, 가족, 우정, 생태환경, 민주시민이다. 그리고 2010년 1학기에는 ‘출생과 탄생’을, 2학기에는 ‘삶과 죽음’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하며 2011년 1학기에는 ‘부르심과 응답’을 주제로 수업이 이루어졌고, 2학기에는 ‘돈과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어문세의 내일

그동안 어문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높은뜻 광성교회에서는 어문세를 교육부서의 한 갈래로



어린이문학세계관학교 11기 교사교육 모습

두지 않고, 독립된 하나의 부서로 두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어문세 프로그램이 조금씩 주변에 알려지면서 다른 교회의 교역자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기 시작했으며, 어문세에서는 교사와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어린이들을 위한 문학교육 프로그램만큼 큰 비중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어문세 프로그램이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나 높은뜻 광성교회만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이다.

어문세를 준비하는 교강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이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에 간혀 있기보다는 이곳을 통해 필요한 곳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한다.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의 강사들을 통해서만 어문세 수업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교사들이 스스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강사로 세워져 더 많은 어린이들이 어문세를 통해 문학을 즐겁게 접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육에 접목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솔직히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임을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6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초창기 멤버를 비롯하여 함께 했던 몇몇 연구원들이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어문세를 떠나기도 하였으며 그 때마다 남은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계속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몰려오곤 하였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분들로 항상 그 빈자리들을 채워주셨으며 우리가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육에 접목하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어문세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은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다. 교강사들과 교역자들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과 신앙의 기쁨을 긴밀하게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매학기의 주제를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속에서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세밀하심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제 어문세의 교강사 그리고 함께 하는 교역자들에게 어문세는 귀중한 사역이고 소명이며 삶이다.

어문세와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 그리고 높은뜻 광성교회의 주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겨 드리며, 오늘도 지극히 작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늘 어문세 를 완전히 마치고 나서 느꼈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평소엔 그냥 감동이나 좋은 말을 듣는 '아! 좋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엄마랑 무엇이 옳은 것인지 토의도 했고요,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어문세 이번 제10회 <삶과 죽음>에서 너무 좋은걸 많이 배워 갑니다. 강사님들, 선생님들, 전도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7일 어문세에 참여했던 한 어린이의 글-

높은뜻 어린이문학세계관학교 안내 (club.cyworld.com/GWKidsLWWSchool)

어문세는 매학기 8주 과정(4회기)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기초에는 교사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 어문세 12기 교사교육과정은 9월로 예정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 안내 (<http://cafe.naver.com/forccbs>)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소망을 가지고 격주로 연구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에서는 아동문학에 대한 이론서를 함께 공부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좋은 책을 함께 읽으며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나눕니다.



김현경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아동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아동문학교육 전공으로 동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기독교유아교육학회 간사로 일했으며 기독교아동문학연구회와 높은뜻어린이문학세계관학교에서 활동 중이다. 현재 '뉴미디어 시대의 그림책'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다.